

李相佰先生과 李朝建國史 研究

韓 永 愚*

1

想白先生이 史學者로서 남긴 著述들을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麗末鮮初에 관한 것과 朝鮮後期에 관한 것으로 大別할 수 있으나, 前者는 論文篇數가 後者에 比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論文제작에 들인 精誠도 後者에 比한다면 월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想白史學은 麗末鮮初에 집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여말·선초에 관련되는 主要論文제목을 發表年代順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庶孽差待의 淵源에 대한 一問題(震檀學報 1, 1934)
- ② 三峰 人物考(震檀學報 2·3, 1935)
- ③ 威化島回軍考(東洋社會紀要 1, 1936)
- ④ 再嫁禁止習俗의 由來에 대한 研究(東洋思想研究 1, 1937)
- ⑤ 禡昌非王說에 대하여(東洋社會紀要 3, 1938)
- ⑥ 儒佛兩教交代의 機緣에 관한 研究(東洋思想研究 2·3, 1938, 1939)
- ⑦ 李朝 太祖의 私田改革運動과 建國後의 實績(震檀學報 15, 1948)
- ⑧ 高麗末 李朝初에 있어서의 李成桂一派의 田制改革運動과 그 實績(東洋學報 28-1, 1949)

以上 8篇의 論文들은 30歲에서 45세에 걸쳐서 집필되었는데 마지막 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초반에 집필된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震檀學會가 창립된 1934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는 日政末期와 해방직후에 집

* 서울大 人文大學 助教授(國史)

증되어 있다. 이를테면 想白史學은 震檀學會의 창립과 동시에 學界에 데뷔하여 震檀學會와 日本의 早稻田大學 刊行의 學會誌를 中心으로 30代의 정력적인 학문활동을 전개해온 셈이다.

想白史學의 총체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면, 그의 史學關係論著를 전부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요, 또 社會學者로서 남긴 著述도 적지 않으므로 이것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것이며, 나아가 政治·社會團體에 참여하여 政治人·體育人으로서 남긴 行蹟이나 업적, 그리고 先生의 家系와 成長過程 受學過程등이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筆者의 力量에 힘겨운 일일 뿐아니라, 또 이 글에서는 그럴 계제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想白先生의 史學論著 중에서 李朝建國史에 관련되는 一連의 論攷만을 검토함으로써 想白史學의 一面을 이해하는 데 그치게 됨을 밝혀두는 바이다.

위에 적은 一連의 여말 선초관계 論文들은 解放직후에 두개의 單行本으로 엮여져서 <李朝建國의 研究>(乙酉文化社 刊, 韓國文化叢書 第9輯, 1949, 1947年 序文)와 <韓國文化史研究論攷>(乙酉文化社 刊, 韓國文化叢書 第2輯, 1947)로 각각 出刊되었고, 이 두 著書를 토대로 하여 1962년에 <韓國史>(震檀學會 刊) 近世朝鮮 前期篇이 저술되었으나, 本書는 他人의 손으로 加筆된 부분이 많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밖에 본격적인 學術的 論著는 아니지만, 1957년에 간행된 <한글의 기원>도 想白史學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업적이지만, 여기서는 論外로 해둔다.

2

想白先生의 李朝建國史研究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想白先生의 史學方法論에 관하여 간단한 이해를 가져두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先生의 史學方法論은 <韓國文化史研究論攷>의 序文에 간명하지

만 함축성 있는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을 한 마더로 집약한다면, 아카데미 史學이라고 불러서 좋을 것이다. 想白의 아카데미 史學은 무엇보다도 엄밀한 實證主義를 존중하며, 實證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歷史의 哲學과 歷史의 科學을合一시키려는데 주안점을 둔다. 歷史哲學이라든가 歷史科學이라는 用語는 비단 아카데미 史學에서만 專有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想白의 이 用語들은 어떤 특정한 社會科學 理論이나, 특정한 史觀에서 쓰는 用語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留意하여야 한다. 그것은 요컨대 個人과 集團・民族과 世界, 個別과 普遍, 事實과 理念, 考證과 思索, 經驗學과 形而上學등을 서로 對立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로合一시킨다는 統一的 認識에 기초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統一的 인식의 기초 위에서 엄밀한 文獻考證的 作業이 시도될 때 비로소 歷史哲學과 歷史科學이 확립되고 실천되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史觀을 가지는 길이요 近代史學의 科學的 方法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想白은 이와 같은 統一的 史觀과 歷史方法論을 내세우면서, 個人이나 階級, 民族이나 世界, 個別이나 普遍, 事實이나 理念, 考證이나 思索, 經驗學이나 形而上學의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극력 배격하고, 마찬가지로의 입장에서 어떤 一般法則과 公式을 미리 假定하여 그것을 어떤 民族의 生活에 健全부회하는 方法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독단적 해석과 機械的 適用은 眞理를 탐구하는 方途가 아니요, 참으로 科學的 方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想白 歷史方法論의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다.

순수한 아카데미 史學을 지향하는 想白의 史觀과 歷史方法論은 이데올로기적 接近을 중요시하는 民族主義史觀이나 階級史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더욱이 想白이 處한 時代의 民族問題와 社會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카데미 史學이 갖는 의미가 훨씬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歷史學의 실천성을 중요시할 때, 1930年代와 1940年代의 아카데미史學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제약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歷史學의 실천성만을 가지고 想白의 아카데미史學을 평가하려 든다면 그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소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史學이란, 어떤 형태의 이데올로기이던지간지, 학문을 이데올로기에 예속시킬 위험성이 있는 까닭에 학문의 순수성을 잃기가 쉽다. 따라서 이데올로기史學은 그 실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학문적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쉬운 것이며, 이데올로기가 바뀌면 그에 따라 학문이 설 자리를 스스로 잃게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史學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時·空을 초월하여 永遠한 生命力을 갖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떠난 아카데미史學뿐이다. 아카데미史學의 또하나의 長點은 그 무한한 포용력이다. 아카데미史學은 學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까닭에 어느 한 가지 理論에 얽매이지 않는 동시에, 무한히 넓은 理論을 흡수·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카데미즘에 기초하지 않고는 史學은 발전되지 않는다.

想白史學의 아카데미즘은 그런 까닭에 무한히 넓은 人文·社會科學의 諸理論을 그 안에 포용하고 있으며, 또 想白만큼 歷史科學과 社會科學을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努力한 이도 드물지 않은가 한다. 흔히 歷史學과 社會科學의 통합을 제창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특정한 社會科學理論에 맞추어 歷史를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兩者의 統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想白의 경우는 이와 전혀 다르다. 가령 考古學이나 經濟學·民俗學·宗敎學·神話學같은 것에 대해서 想白은 그것이 國史研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업적은 현재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하고 未備한 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利用함에는 쓰는 方法이 있을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비단 歷史學이나 社會科學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想白은 언제나 그들 상호간의 제휴·협동을 주장하여, 각 학문이 가진 一面的·추상적·독선적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아마도, 想白만큼 社會科學 諸分野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진 이도 드물거니와, 또 그만큼 個別的인 社會科學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社會科學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한 이도 흔하지 않은 것 같다. 1959년에 발표한 〈社會科學統合을 위한 試論〉(思想界)은 바로 그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씌어진 것으로, 위에 든 〈韓國文化史研究論攷〉序文과 아울러 想白史學의 아카데미즘을 이해하는데 示唆하는 바 크다.

想白史學의 아카데미즘은 그 理論에 있어서보다도 그 研究成果의 實際에서 검증하는 것이 더욱 온당한 방법이라 하겠다. 〈李朝建國의 研究와 韓國文化史研究論攷〉에 수록된 論文들은 그 主題가 어떠한 것이든간에 思想史·社會史·政治史·制度史등이 폭넓게 혼용된 형태로서 접근되고 있으며, 그 위에 煩瑣하리만큼 精緻하고 엄밀한 文獻考證的 分析이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想白의 論文은 매우 視野가 넓고 重厚하고 견실하며 安定感이 있다. 흔히 文獻考證을 존중하다가보면 文獻에 얽매다가 文獻의 迷宮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작은 문제에 골몰하다가 大勢를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想白의 경우는 巨視的 通察과 微視的 分析이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어, 나무도 보고 수풀도 그리며, 大河와 支流가 充實하게 會一되고 있다. 이 점은 想白史學의 특징인 동시에 큰 강점이며, 또 想白史學이 오랜 生命力을 지니게 되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3

想白史學의 白眉라 할 수 있는 李朝建國史研究는 李朝建國을 전후한

政治的·思想的·社會的 變化를 多元的으로 分析하여 李朝建國의 역사적 의의를 해명한 획기적 勞作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時代는 禑王14年 威化島回軍에서부터 太宗末年까지의 약 30년간이다. 이 기간은 李朝建國主體勢力이 하나의 政治勢力으로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여 革命課業을 완수하고 물러난 一世代의 세월이다.

想白은 李朝建國의 근본적인 계기를 思想이나 對外關係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新勢力과 舊勢力의 經濟的 利害關係의 갈등에서부터 풀어나감으로써 社會經濟的 要因을 一次的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歷史發展의 源動力을 관념적인 요소나 국제정세보다도, 民族내부의 社會 經濟的 發展과정에서 인식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가 社會經濟史學의 方法論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新·舊勢力의 利害갈등이 정치운동으로 표면화된 것은 田制改革운동이며, 여말·선초의 모든 政治的·思想的 갈등은 기본적으로 田制改革을 둘러싼 이해대립으로 풀이되고 있다. <李朝建國의 研究>의 副題로서 <李朝의 建國과 田制改革問題>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田制改革운동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想白의 評價는 <李朝建國의 研究 序文>에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田制改革운동의 根本動機가 本文中에 누누히 言及한 바와 같이 결코 社會革命的·社會政策的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軍國의 當面의 需要와 新進官吏의 祿俸의 充足이라는 單純한 財政政策的 見地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田制改革운동은 國利·民福을 전제로 하는 社會革命的 내지는 社會政策的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李成桂를 둘러싼 新進官吏와 麾下 軍士들의 祿俸과 軍糧미를 充足시키기 위한 財政政策的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李派의 上疏文에서 표방되는 것과 같은 古代 公田制의 理想을 실현시키려 한다든가, 仁政을 베풀어 民生을 蕩火에서 救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낱 口號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극성

과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田制改革은 당시의 國利·民福에 일정한 정도로 기여한 것을 想白은 무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田制改革운동을 주도한 李派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가장 전진적인 세력이며, 그들의 승리로서 귀결된 조선왕조의 건국도 따라서 歷史의 前進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조선왕조의 건국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혁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停滯的 王朝交替에 머문 것도 아니다.

田制改革운동에 나타난 李派의 전진적 자세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난 想白은, 新舊兩派간에 벌어진 중요한 政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첫째로 威化島回軍의 성격에 대하여 想白은 이를 親明事大의 所行으로 보지 않고 어디까지나 實利에 기초한 戰略的 後退라는 것을 明快하게 해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威化島回軍의 참된 動機는 군량미 부족에 있으며, 그래서 李派는 開國後에 다시 攻遼計劃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李一派와 鄭夢周·李穡等 舊臣一派와의 政爭, 이를테면 尹彛 李初의 獄사건이나 田制개혁을 둘러싼 相爭에 대해서 그 因果關係를 세밀히 추적하여 李一派와 李穡一派가 서로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하여 얼마간의 음모를 꾸민 것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개혁을 주장하던 李一派를 소극적 개혁을 주장하던 反對派들보다는 전진적인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儒教的 道德主義의 관점에서 李一派의 不道德性을 강조하고 그 反對派를 忠臣으로 간주하던 前近代의 평가는 지양되고 있다.

세번째로, 李朝建國과 直結되는 政治的 事件은 아니지만, 李朝建國 主體者의 對外觀이나 그들의 건국이념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소위 鄭道傳亂(또는 戊寅難)의 성격에 대해서도 想白은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太祖 7年에 발발한 이 사건에 대하여 官邊側記錄에서는 모든 책임을 鄭道傳一派에 전가하여 기술하여 놓았었다.

그리하여 鄭一派가 어린 世子 芳碩을 끼고 王子와 宗親을 해치려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李芳遠一派가 先制공격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想白은 저 〈三峰人物考〉(韓國文化史研究論攷에서는 이를 鄭道傳論으로 改題함)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추적하여,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王子간의 王位繼承싸움에서 일어난 것이요, 여기에 鄭道傳一派의 급진적인 개혁정치에 불만을 품은 李穡의 門人들과 고려의 舊臣들이 加勢하여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임을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鄭道傳一派의 累名이 解明되었을 뿐만 아니라, 太宗代의 政治勢力이 여말의 보수적 舊臣들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 다음, 李朝建國과 관련하여 나타난 思想的 변화를 추적한 것이 〈儒佛兩教交代의 機緣에 대한 一研究〉(韓國文化史研究論攷收錄)인데, 여기에서도 想白은 儒佛交替의 근본적인 機緣을 思想 그 자체의 갈등보다도 寺院經濟와 승려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경제적 동기, 즉 國家財政과 軍資問題에서 출발한 것임을 정밀하게 論證하고 있다.

여말의 儒學者 가운데, 적극적인 排佛論者와 소극적인 排佛論者가 갈라지는 이유도, 그것이 儒敎(性理學)에 대한 학문적 조예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改革에 대한 熱意의 차이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鄭夢周나 李穡등이 儒學者로서는 매우 명성이 떨치던 人物임에도 排佛운동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社會改革의식이 소극적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이며, 반대로 斥佛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少壯儒學者들은 儒敎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가 아니라, 佛敎의 社會的 폐단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鄭道傳만은 例外的으로 性理學者로서도 가장 뛰어난 思想家였다고 본다.

朝鮮建國後 太宗代에 이르기까지의 一連의 佛敎施策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太祖·定宗·太宗같은 君主는 內心 佛敎를 숭신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國家財政이라든가 軍資문제 등으로 해서 佛敎를 억압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조선초기에 가장

철저한 斥佛王으로 알려진 太宗같은 이도 寺院經濟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는 도리어 崇佛政策을 쓸 정도로 二重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말·선초의 儒佛교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思想투쟁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까닭에, 불교는 근본적으로 제거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억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4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想白의 李朝建國史研究는 李朝建國의 主體勢力인 李成桂一派를 여말의 政治勢力가운데서 가장 전진적인 정치세력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田制改革을 비롯한 일련의 社會改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舊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고, 마침내는 새 왕조를 건설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귀결되어진다. 李一派는 위화도回軍時부터 王位찬탈에 야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요, 田制改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舊세력의 반발이 드세어진 위기 속에서 공양왕 말년경에 이르러 부득이 王位찬탈이 시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李一派가 전진적인 정치세력이라고 해서 그들이 國民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社會改革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니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經濟的 政治的 利害를 일차적으로 해결하려는 黨派的 改革家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李朝建國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그만큼 제약되는 것으로 보지만, 李一派를 위한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國家나 國民전체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李朝建國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발전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李朝建國을 民族史의 한 발전과정으로 정립시킨 것은 想白史學의 가장 큰 功績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30年代의 歷史學의 위치에서 볼 때, 李朝建國史 연구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우리나라 近代史學은 韓末·日帝初의 소위 民族主義

史家들에 의해서 定礎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古代史研究에 注力하였고 李朝史研究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李朝建國을 보는 눈은 크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前近代的 儒教的 立場에서의 李朝史觀이니, 이것은 朝鮮王朝의 臣民된 立場에서 李朝建國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功德을 李王家에게 돌리고, 여말의 反革命派人士들을 忠臣으로 추앙하는 경향이 많았다. 鄭道傳등과 같은 開國功臣은 도리어 王室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되어 그 功績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高麗史>나 <龍飛御天歌>등에서부터 정초되어 왕조말기까지 답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近代史學의 立場에서 수긍할 수 없는 立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두번째는 近代史學을 자처하는 日人들의 李朝史觀이다. 그들은 李朝史의 중요한 特性的 하나를 事大主義에서 찾고, 그러한 특성이 李成桂의 威化島回軍에서부터 이미 建國理念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李朝建國은 元·明이 교체되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힘입어서 이룩된 것으로서 親明事大派가 親元事大派를 대신하여 政權을 탈취한 것이며, 이미 威化島回軍에서부터 그러한 事大主義이념이 천명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日人의 견해에 대하여 想白은 <李朝建國의 研究>序言에서 단호한 反對의견을 제시한다.

「高麗의 쇠망과 李朝의 興起하는 교체현상을 당시의 國際關係·外交關係를 중시함으로써 元朝의 패망과 明朝의 新興에 따라 高麗朝廷 내부에 事元·親明 양파의 알력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日人學者들이 力說하는 바이나, 이것은 고려조정과 李朝政客의 事大思想을 과대 평가하고 또 意識的 또는 無意識的으로 우리 民族의 自主성과 自尊心을 멸시 또는 말살하려는 立場에서, 더욱 그 근거에 치중하는 感이 있다. 물론 당시의 元明의 교체에 따라 고려조에 兩派의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곁에 있어서도 李成桂一派가 舊家世族과 대립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王朝의 교체 그 자체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요, 禑王과 崔瑩의

遼東出兵이 事元反明에서 나왔고, 李成桂의 威化回軍이 親明事大사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皮相의 관찰이다.

由來로 우리나라 外交政策上의 소위 事大라는 것은 어느때나 가장 實利를 取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요, 공허한 形式論으로 王朝의 운명을 희생하면서 冒行한 일은 없다. 元朝의 外孫인 恭愍王이 明太祖의 新興함을 듣고 反元親明의 外交政策을 세운 것도 그 理由가 있고, 崔瑩이 공민왕의 忠臣이면서 요동공격을 決意한 것도 역시 이유가 있는 것이요, 李成桂가 威化回軍한 것도 단순한 事大思想으로 乾坤一擲의 모험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李成桂의 第一의 股肱이라고 할만한 鄭道傳이 여말에 있어서 親明派의 가장 尖銳한 투사로 自他共任하면서 後日 明朝의 無理橫壓에 반발하여 다시 攻遼主張의 先鋒으로 구체적 준비를 진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여말·이초의 對元·明 外交關係는 흥미있는 연구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말 朝臣의 정치투정에 있어 영향한 바 길기도 하나, 그것은 王朝교체의 문제와는 別로히 考究할 문제다.]

다소 지루한 引用이지만, 日人들의 他律的 李朝建國史觀에 대한 想白의 비판이 얼마나 도도하고 명쾌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外交政策으로서의 事大를 事大主義와 同一視하여 치부하려는 경향은 비단 日人學者들 뿐아니라, 民族主義史家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丹齋 申采浩같은 民族史家는 金富軾 이후의 儒學者들의 事大政策을 非自主的인 奴隸主義로 혹평하고, 李成桂一派의 對明事大나 威化島回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攻遼운동에 앞장섰던 崔瑩과 이에 反對했던 李成桂는 마치 愛國者와 非愛國者, 또는 民族主義者와 反民族主義者처럼 대조되고 있었다. 물론 民族主義史家들의 事大主義에 대한 비판은 日人學者들과는 그 發想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前者는 事大主義를 특정한 時代, 특정한 部類의 思潮로 인정하는 것이요, 後者는 그것을 우리 民族의 通時代的 民族性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李朝建國을 否定的으로, 他律的으로 인식하기는 양자가 마찬가지로였다. 想白의 李朝建國史 연구는 이러한 편견을 지정하여 主體的·發展的인 관점에서 李朝史觀을 再定立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想白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朝鮮時代史를 연구한 이로는 柳洪烈·申奭鎬·李仁榮등 여러 學者가 있었으나, 柳洪烈先生은 여말선초의 私學분야, 申奭鎬先生은 16세기의 政治분야, 그리고 李仁榮先生은 對外(北方)關係史에 치중하여 李朝建國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는 想白뿐이라 할 수 있다.

1930年代이후로는 日人學者中에서도 實證的으로 李朝建國을 前後한 시기의 社會經濟분야를 연구하는 이가 나왔는데, 周藤吉之와 深谷敏鐵은 가장 著名하다. 이들은 비교적 편견을 갖지 않고 麗鮮交替를 發展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政治史나 思想史에 대한 이해가 不足하여 想白처럼 넓은 視野에서 왕조교체의 의미를 천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1930年代의 李朝史 연구수준에서 볼 때, 想白史學의 위치는 단연 선구적일 뿐 아니라 탁월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970年代의 오늘의 時點에서 李朝建國史연구를 회고해본다면 몇가지 아쉬운 점이 지적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李朝建國의 계기를 지나치게 李成桂一派의 黨派的 利害관계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建國主體 세력의 黨派的 이해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창건된다는 엄청난 정치적 변동은 몇 사람의 黨派的 이해 관계만으로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보다 더 넓은 社會階層의 潜在的 참여가 있으므로써 가능한 것이다.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건설하는 物理的인 힘과 精神的인 힘은 李成桂의 威化島回軍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고려 사회가 民族的인 시련이나 社會矛盾을 체험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朝建國의 계기는 時間的으로 威化島回軍보다는 더 거슬러올라가서 추적되어야 하며, 적어도 李成桂一派의 新興세력을 成長시킬 수 있었던 몽고간섭시기의 社會動向이나 文化動向에 대한 이해가 따랐어야

했을 것이다.

그 다음, 李成桂一派가 추진한 一連의 改革政治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王朝創業에 따르는 본의아닌 妥協과 양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흠이 있다. 威化島回軍이 遠大한 攻遼政策을 내다본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이듯이, 田制改革이나 科田法등과 같은 것도 어떤 遠大한 目標을 向한 임시적·단계적 조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 田制改革과 科田法이 비록 不充分한 점이 많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李成桂一派의 녹봉이나 군지대 확보만을 위한 財政政策的 조치라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田制改革과 科田法에도 土地所有諸關係의 變化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國家財政뿐만 아니라 農民의 生活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田制改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農民生活에 중요한 變化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財政政策的 次元을 넘어서서 社會政策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田制改革의 의의를 財政政策的 次元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周藤吉之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여말 선초의 田制改革이 국가재정상으로는 큰 變化를 가져와서 高麗의 私田中心의 分權的 封建社會가 李朝의 公田中心의 中央集權的 封建社會로 전환하는 계기를 가져왔고 또 豪族들의 경제기반에 변동이 초래된 것은 인정하였으나, 小作農이 自作農으로 上昇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變化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田制改革을 소극적으로 평가한 점에서 想白과 周藤吉之는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想白의 연구는 建國理念에 대한 思想史的 접근이 결핍되어 있다. 儒佛交替의 문제도 지나치게 經濟的 이해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排佛운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새로운 哲學體系와 統治理念의 성격이 정신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充分히 고려하지 않았다. 排佛운동은 寺院經濟의 해체를 一次的 目的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鄭道傳亂에 대한 해석도 이것을 權力關

係나 新舊세력의 갈등으로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統治理念의 차이도 아울러 고려되어야만 그 眞相이 더욱 선명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元明交替라는 國際情勢의 변동이 李朝建國에 미친 영향도 지나치게 무시되었다고 본다. 물론 國際情勢의 변동이 이조건국의 一次的要因인 것처럼 인식하는 口人의 입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동을 이조건국과 전혀 無關한 것이라고 보는 想白의 입장도 지나치게 歷史發展의 內在的 要因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元明交替가 李成桂一派의 執權에 반드시 有利하게만 작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元과 밀접되었던 舊勢力에게 不利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요, 또 李一派에게 새로운 大義名分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李朝建國에 미친 영향을 인정한다고 해서 李一派의 主體性이 부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 歷史發展의 內在的 要因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民族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전진적인 입장에서 새 王朝를 개창한 李一派야말로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